

“한국 배구 강한 수비 인상적…챔피언결정전 향해 뛰겠다”

페퍼스 새 외국인 공격수 조이 웨더링턴…작은 키에도 점프 좋고 스파이크 강점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새 공격수' 조이 웨더링턴(23·미국)이 2025-2026시즌을 위해 V-리그 코트를 밟는다.

AI페퍼스는 지난 5월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프로 배구 2025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웨더링턴을 지명했다.

웨더링턴은 오는 10월 개막을 앞두고 지난 7월 29일에 입국해 팀에 합류한 지 2주 남짓 됐다. 웨더링턴은 12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V-리그 데뷔전을 앞둔 웨더링턴은 “선수들과 감독님을 포함해 스태프, 코치진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다. 아직 긴장되지만 팀에 잘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설렘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미국 출신인 웨더링턴의 포지션은 아포짓 스파이크로 2024-25시즌 그리스 AEK 아테네, 2023-24시즌 푸에르토리코 아테니엔세스 마나티에서 활약했다. 아시아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이는 “V-리그를 뛰어본 미국 출신 동료들이 있었는데, V-리그가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들었다.

이런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2-23시즌 페퍼스에서 뛰었던 니아 리드가 조언을 많이 해줬다.

웨더링턴은 “니아는 V-리그가 힘들지만 훌륭한 리그이기에 열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다. 이곳을 좋아하게 될 거라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 정말 그렇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V-리그와 기존에 뛰었던 리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스타일’의 차이만 존재할 뿐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웨더링턴은 “아직 시즌 경기를 치르지 않아 큰 차이점은 못 느꼈다. 배구라는 것은 똑같고 리그별로 스타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라며 “다만 수비가 전에 해 봤던 것들에 비해 정말 좋았다. 연습할 때도 선수들이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에 스코어를 내기가 어렵다. 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웨더링턴은 184cm의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점프가 좋고, 강한 스파이크가 강점이다. 이번 시즌 페

퍼스에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웨더링턴은 “아포짓 포지션 선수로서 파워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 점에 자신감이 있고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팀 동료가 되는 것”이라며 “팀원들과 잘 어울리며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즌 개인 목표에 대해서는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인 목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팀 목표나 개인 목표 모두 일단 승리하는 것”이라며 “별(최고)을 향해 쏠겠다. 높은 목표로 달려가겠다는 의미로 개인적인 목표와 팀적인 목표 모두 챔피언결정전에 도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팀 스포츠에서의 목표는 ‘우승’임을 강조했다.

한편 웨더링턴으로 새 시즌을 구상하고 있는 장소연 감독은 “이번에 새로 지명된 선수들이 다 기대가 된다. 웨더링턴은 파워가 좋고, 고예림은 디펜스가 강하다. 새로운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AI페퍼스의 '새 공격수' 조이 웨더링턴이 12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2026 시즌 소감을 밝힌 뒤 손가락 하트 포즈를 선보이고 있다.

V리그 10월 18일 개막…페퍼스 ‘이번엔 끝까지 탈출’

21일 도로공사와 개막전

내년 3월 18일까지 36경기

울스타전 내년 1월 25일

3월 21일부터 포스트시즌

2025-2026 프로배구 V리그가 10월 18일 막을 올린다. 남자부 현대캐피탈-대한항공, 여자부 흥국생명-정관장이 개막전 승리를 놓고 다툰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2025-2026 새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디펜딩 챔피언’ 홈구장에서 개막전이 열리면

서 남자부는 현대캐피탈의 천안 유관순체육관,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새 시즌을 연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승부를 펼쳤던 대한항공과 정관장이 각각 이들의 안방으로 가 설욕전에 나선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10월 21일 도로공사를 페퍼스타디움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승사냥에 나선다.

각 팀은 내년 3월 18일까지 6라운드 36경기(총 126경기)를 소화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V-리그 코트가 열린다. 단 설 연휴가 있는 내년 2월에는 목요일인 5·12·19일에 경기를 쉬어간다.

울스타전은 내년 1월 25일 치러진다.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포스트시즌은 내년 3월 21일 시작된다.

3·4위가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단판 승부를 벌이고, 승리 팀은 2위와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PO)에서 맞붙는다.

PO승자는 챔피언결정전에 나서 1위와 우승트로피를 놓고 5전 3선승제의 승부를 펼친다.

PO 1차전과 3차전은 정규리그 2위 홈에서, 2차전은 준PO 승리 팀 홈 코트에서 진행된다.

3월 29일 시작되는 챔피언결정전은 정규리그 1위 팀의 안방에서 막을 연다.

1, 2, 5차전은 정규리그 1위 팀의 안방에서 열린다. 3, 4차전은 PO 승리 팀 홈에서 이뤄진다.

한편 준PO는 3, 4위 간 승점 차가 3점 이내일 때만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1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전에서 5회 스윙 후 배트를 놓치고 있다. 이날 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다시 안타 행진을 시작했다.

SF 이정후 안타 행진

샌디에이고전 3타수 1안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다시 안타 행진을 벌였다.

이정후는 12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서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일본 출신 선발 투수 다루빗슈 유를 상대로 내야 안타를 뽑아내는 등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끊겼던 이정후는 다시 안타를 생산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는 8월 이후 10경기에서 타율 0.342(38타수 13안타)를 찍었다. 시즌 타율은 0.256을 유지했다.

안타는 0-0으로 맞선 2회말 공격 때 나왔다. 1사 1루에서 다루빗슈를 만난 이정후는 파울 2개를 치면서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 몰렸다.

3구째 바깥쪽 슬라이더도 제대로 공략하진 못했다. 그러나 빗맞은 타구는 느리게 3루 방면으로 흘렀고, 이정후는 빠르게 내달려 1루에 도착했다.

이정후의 내야 안타로 1사 1·2루 기회를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엔 실패했다.

이정후는 나머지 타석에서 침묵했다. 0-0으로 맞선 5회초 선두 타자로 나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1-4로 뒤진 7회말 공격에서는 1사 1루에서 바뀐 우완 투수 제리마리아 에스트라다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 땅볼을 쳤다.

샌프란시스코는 1-4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다루빗슈는 이날 승리로 시즌 2승째(3패)를 거둬 MLB 통산 승수를 112승으로 늘렸다.

박찬호가 남긴 아시아 출신 투수 최다승(124승)에 12승 차이로 다가섰다.

탬파베이 레이스 김하성은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